

본 연구팀은 100명의 역사인물에서 추출한 인물 정보를 통해 1차 년도에 개발한 민족기록화 플랫폼에서 간과되었던 주제들을 보충,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민족기록화DB에서 구축한 인물 노드 115명과 역사인물로 지정된 100명의 인물 중 중복 인물 32명을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중복 인물은 민족기록화 작품 106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인물(1차 노드) 22명과, 민족기록화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1차 노드와 관련된 유의미한 인물(2차 노드) 1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복되는 32명의 인물 노드로부터 1차 년도에 구축한 민족기록화 인물 데이터의 시각적 자료를 발굴, 수집하여 민족기록화 인물 이미지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인물 기준 민족기록화 관련 예시

	인물	해당 민족기록화
1	조현	조현선생의 금산전투
2	장보고	장보고의 해상 활동
3	최무선	화포와 화약을 제조하는 최무선
4	정약용	정약용과 저술
5	김정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	⋮	⋮
28	김대성	김대성과 석굴암
29	최익현	최익현 선생의 유해 환국
30	휴정	승군을 지휘하는 휴정(서산대사)
31	허준	허준과 동의보감
32	최영	최영장군의 홍산전투

이렇게 추출한 32명의 인물 노드는 민족기록화 DB의 인물 노드에 대한 정보를 보완, 보충할 수 있으며, **한국 역사인물** DB와 민족기록화 DB,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지식을 확장적으로 수용하여 이야기를 발굴해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팀은 100명의 역사인물을 통해 민족기록화에 담기지 않은 한국문화의 주요 사건과 주제 의식에 대한 시각적 자료를 발굴, 수집, 제작하여, 민족기록화 디지털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기반으로 균형성을 갖춘 한국문화사 시각자료집을 제작하고자 한다.

민족기록화 106점은 주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소재로 하여 그려졌으나, 여성 인물은 작품의 중심에 놓여있지 않았다. 1967년 문학진 작가가 그린 ‘삼일운동’ 작품에는 여성 인물인 유관순이 등장하나, 삼일운동이라는 사건의 상징보다는, 메타포로 등장하여 작품의 후경에 묘사되었을 뿐이다. ‘삼일운동’ 작품 외에 등장한 여성들도 작품의 여백을 채우는 군중이나, 대명사로 소환되어 익명의 인물로 그려졌다. 이러한 민족기록화의 맹점을 **한국 역사인물** DB 여성 인물 노드인 신사임당, 허난설헌, 장계향 그리고 김만덕의 시각 이미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으며, 민족기록화

<한국 역사인물 DB 편찬 내용 및 방법 - 민족기록화 DB 편찬 내용과의 연계>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전근대기 대표적인 여성들의 활동들을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역사인물 DB를 통해 주로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족기록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적 색채를 덜친 민족기록화 작품에는 김충선 작가의 1979년^작인 ‘혜초의 천축구법 활동’과 1976년^작인 박서보 작가의 ‘설법으로 왜장을 감동시킨 사명당’과 박광진 작가의 ‘승군을 지휘하는 휴정’, 이 세 작품만 있을 뿐이다. 본 연구팀이 구축할 한국 역사인물 DB의 인물들 중 불교적 색채를 가진 인물들인 일연, 지눌, 안향, 의천, 왕건을 통해서 민족기록화에 부족한 종교인들을 보충할 수 있으며, 해당 인물들의 생애와 관련 문화유산을 통해 한반도의 불교문화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인물들인 한호, 김병연, 윤선도, 윤두서와 조선 성리학의 사상적 계보를 잇는 인물들인 정도전, 손소, 이이, 이황, 김장생, 송시열, 허목, 이익을 통해서 민족기록화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문화예술인들의 시화서(詩畵書)와 성리학자들의 학문적 사상을 문화유산과 함께 들여다봄으로써 사건에 치우친 민족기록화의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